

영광교육지원청, 제1회 영광 한마음파크골프대회 개최

학생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신나게 게임 즐길 수 있는 자리 마련
학생·학부모·교직원 함께 팀 이뤄 첫 대회 개최하여 만족도 높여

영광교육지원청은 제1회 영광 한마음 파크골프 대회를 불갑파크골프장에서 개최하였다.

코로나 19로 운동이 부족하고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없었으나, 이번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신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파크골프 대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팀을 이뤄 첫 대회를 개최하여 만족도가 높았다. 파크골프는 많은 연습이 필요로 하지 않지만, 학생들은 학부모와 함께 미리 파크골프를 연습하여 대회에 참여하였다.

영광교육지원청에서는 제1회 파크골프 대회를 위해 파크골프 선도학교 4개교 불갑초, 대마초, 백수중, 군남중을 선정하여 학생들의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길 수 있도록 장비를 지원하였고, 학교에서는 관리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운동증진을 위해 파크골프를 관심있게 지도하였다.

추운 날씨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안전하게 파크골프 대회를 운영하였고, 파크골프에 대한 열정을 가진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추운날씨에도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불갑초 학생은 "처음에는 파크골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친구들과 선생

님이 함께 모여 연습하는 시간이 너무 재밌었다." 하면서 "내년에 파크골프 대회가 있다면 더욱 연습을 많이 하여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한 학부모는 "학생들이 운동부족으로 많이 걷지도 않고 집에만 있으려고 하는데, 자녀와 함께 파크골프를 치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자녀와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다"면서 "교육지원청에 내년에도 계속 파크골프 대회를 추진하여 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준곤 교육장은 "이번 제1회 파크골프 대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내년에는 더욱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우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즐기면서 대회에 참여하는 자리를 만들

어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목포정명여고, '독도 대첩의 날' 행사 진행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가 '독도의 날'과 '독도 대첩의 날' 행사를 진행하여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를 기념하고,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매년 10월 25일을 전후로 계기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 행사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도 매년 독도의 날이 오면 계기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독도 사랑과 수호를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독도를 기념하는 또 하나의 날인 독도 대첩의 날은 1954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의 독도의용수비대가 일본 해상보안청의 독도 점입을 격퇴한 전투를 기념하는 날이다.

일본에 비해 열악한 무장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침략을 저지하여 혁혁한 전과를 뒀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귀중한 전투라 볼 수 있다.

다소 생소한 정보인 '독도의용수비대'와 '독도 대첩'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한 이날 행

사는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의 전 교직원 및 전교생이 참여하여 독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일어났던 사건을 기념하였다.

지난 4월 이래로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의 고백신 동아리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주관하는 독도지킴이학교 인원으로 선발되어 독도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홍보하는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예로 지난 7월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마련된 독도 체험관을 방문하여 독도의 연원, 유래, 생태, 영토분쟁과 관련된 고지도 및 사료 등을 탐구하였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심을 보이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탐방을 통해 배운 내용을 전교생들에게 널리 공유하고, 홍보하기 위해 이번 11월 21일 독도 대첩의 날을 계획하여 진행하였다. 행사를 준비할 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카드 뉴스 및 포스터를 제작하여 게시하였고, 행사 당일에는 독도 기념품(볼펜, 지우개)을 제공하면서 독도 대첩의 날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독도와 관련된 초성 퀴즈를 내어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도 하였다.

또한 앞서 진행된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다시 기념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게시하였다.

학생들은 주의 깊게 게시판을 바라보며 독도 대첩의 날을 기념하였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탐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전남교육연수원, 울릉도·독도 현장체험연수 운영

역사·생태·환경교육 위한 중등학교 교무부장 역량강화 직무연수



전라남도교육연수원은 11월 2차에 걸쳐 울릉도, 독도에서 중·고등학교 교무부장 100명을 대상으로 '역사·생태·환경교육을 위한 중등학교 교무부장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총 3일간 25시간이 운영되었으며, 원격연수와 현장체험 연수로 구성된 연수생의 역사와 지속가능한 교육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이해를 넓히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운

영되었다. 연수는 총 2기로 구성하여, 1기는 11월 10일부터 12일(토), 2기는 11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각 2박 3일로 울릉도, 독도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무부장을 대상으로 운영된 이 연수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적 전환교육의 일환으로 현장체험형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내년도 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에 연수 내용이 반영되도록 교육과정 연계 역사, 생태, 환경교육 운영을 위한 기본 철학을 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연수가 진행되었다.

한편 연수생들은 울릉도의 생태, 환경에 감격하였으며, 독도에 도착하여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국토수호와 나라사랑의 의지를 다졌다.

김재환 기자

장성 삼서초, 심리검사 통해 '소중한 나를 만나다' 진료 탐색 운영

6학년 학생 13명 대상, 진료 탐색 위한 심리검사 실시

장성 삼서초등학교는 지난 28일 6학년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진료 탐색을 위한 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심리검사에서는 자신의 성격 유형 확인하기, 유형별 성격 특성과 진료 확인하기, 성

격 유형별 집단토론하기 등 초등학교를 마무리하는 6학년 학생들에게 맞춤형 직업 탐색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장성=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